

문명란 시로 한·일 '오월정신' 나누다

‘...5월 광주’ 일본어판 발간 기념
일본 주오대서 500명 심포지엄
“문학 통한 한일교류 계기로”



문명란 시집 '직녀에게·1980년 5월 광주' 일본어판 '사진' 발간을 기념하는 한일심포지엄이 최근 주오대 다마캠퍼스에서 열렸다.



최근 일본 주오대학교서 열린 문명란 시집 '직녀에게·1980년 5월 광주' 일본어판 발간 기념 심포지엄 모습.

한국에서 문명란 시인의 장남 찬기씨, 일월 서각 백명수 대표 외 서은문명란문학연구소(황일봉 이사장) 회원 10여명이 참가해 '직녀에게', '희망가' 등 고인의 시를 우리말로 낭송하는 등 한일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주오대 정책문화종합연구소와 주오대 법학부가 '시는 언어의 디자인-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인가'라는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는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심포지엄은 정책문화종합연구소 '동아시아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팀'이 주최로 문명란 시집 간행기념의 뜻을 담아 한국과 일본의 시와 시인이 수행한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빼먹고 있는 한일관계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 등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문학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 기초강연에 나선 김준태 시인은 "한국 시인들의 경우 시는 각종 서정의 산물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양자주망, 투쟁의 산물이기도 하고 통일문학의 산물이다"며 "모든 비극의 원인이 분단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치고 김준태 시인은 자신의 통일시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를 낭독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사카모토 나옴시인은 미나타마병(수오병) 환자로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이들의 치유와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험을 들려줬다. 또한 환자들의 애환과 자신의 고통이 담긴 시를 소개했다.

2부 첫 발제는 김정훈 전남과대학 교수가 나서 '문명란 문학의 시대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직녀에게'와 '희망가'가 탄생한 배경과 주제에 대해 언급하며 "문명란이 잔잔한 시정 시로부터 시작활동을 시작했지만, 격동하는 시대적 상황에 강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양자주망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실천운동과 문필활동을 전개한 면도 소개하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문명란의 시정과 5월 정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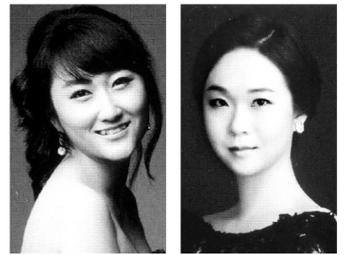
일본 가수 이바라키 다이코 씨는 문명란 시인의 '희망가'에 일본어로 곡을 붙인 노래를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바라키 씨는 교류회에서 레코드로 취입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 발제자로는 로 미치코 작가, 사가와 아키 시인, 리키마루 사치오 주오대 교수 등이 나서 "한일현대 시의 사회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코멘테이터로 오타 미와 주오대 교수, 야기 미키오 시인이 등단해 한일 발제자의 내용에 대해 논평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히로오카 모리호 교수는 "일본의 풍토와는 다른 문학적 형태와 성격을 지닌 한국 시와 시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싶었다"며 "문명란 시집 발간을 계기로 문학을 통한 한일교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후 이어진 교류회에서 김정훈 교수는 "히로오카 교수와 주오대 법학부 학생들의 광주방문, 특히 국립 5·18민주묘지방문이 문명란 시집을 번역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문명란 시집 발간 작업에 애쓴 한일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피아노아카데미 '북유럽 음악여행'

11월2일 50번째 정기연주회



최유진

강효미

지난 1990년 창단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지역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됐다. 창립연주회 이후 지금까지 바르토크 음악연주, 슈베르트 이전 낭만작품 연주, 향토작곡가 작품 연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공연을 이어왔다. 지난 2016년에는 25주년을 기념하여 '베토벤을 위하여'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구재환)가 50번째 정기연주회를 진행한다. 11월2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연주회 주제는 '북유럽 음악여행'으로 잡고 핀란드 국민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벨리우스를 비롯해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 핀란드의 린드베르그 등 북유럽 작곡가의 작품으로 레퍼토리를 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최유진(순천대 강사)씨가 그리그의 '서정 소품'을 연주한다. '서정소곡집'은 '아리아드나', '왈츠', '야경의 노래', '요정의 춤'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반수진(광주연재원 출강)씨가 시벨리

우스 '바가텔'과 린드베르그의 '연습곡 2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효미(전남대 강사)씨는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조순미(광주여대 교수)씨는 그리그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려준다.

내년 5월 제5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프랑스 음악여행(프랑스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을 준비중이며 음악여행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6331-683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풍암호수공원 작은도서관 개관

11월14일 최숙희 작가 초청

풍암호수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 풍암호수공원에 개관한 작은도서관은 지난 8월 하순 위탁운영 단체를 공모해 (사)대한독서문화예술회(대표 심명자)가 수탁자로 선정됐으며, 향후 3년간 운영을 할 예정이다. 대한독서문화예술회는 자원봉사자 10명과 상근근무자를 모집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착수하게 됐다.

현재 풍암호수작은도서관에는 약 11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다. 어린이 도서와 일반 도서가 5:5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는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도서관은 개관 기념으로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한 견학 코스로 '도서관을

만나오, 책과 놀아오'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독서활동 증진을 위해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북다이트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2주마다 추천도서를 4권씩 선정하고, 북다이트 때 한 권을 선택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에서는 인근의 작은도서관과 연계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출판사와 작가들의 협조를 토대로 '모이자-책마당'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행사로 11월 14일 오후 2시에 '팬클럽'의 최숙희 작가, 책읽는곰 출판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관 관계자는 풍암호수공원이 갖고 있는 생태와 자연을 접목한 체험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10-6617-1783. /박성천기자 skypark@

운동주 마지막 흔적...일본 시민들 시비 제막

日 교토 우지천 기슭에

일본 교토의 한 시골 마을에 운동주를 기리는 기념비가 일본 '팬'들에 의해 세워졌다.

교토 우지시 지역 시민들이 중심인 '시인 운동주 기념비 건립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우지천 신하코바시 기슭에서 '기억과 화해의 비'를 제막했다.

운동주 시인의 시가 적힌 기념비는 교토부 내에 만 도시사대학과 교토조형대 등 2곳에 이미 있다. 도시사대학은 시인이 다녔던 대학교며 교토조형대는 시인의 하숙집이 있던 자리다.

이번에 설립된 기념비는 일본의 대학 캠퍼스 밖에 세워진 운 시인에 대한 첫 번째 기념비다. 크기(가로 120cm·세로 175cm·폭 80cm) 역시 가장 크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모금을 하고 힘들게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내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우지시는 현존하는 운 시인의 마지막 사진이 촬영

된 장소라는 점에서 시인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도시사 대학 재학 중이던 운 시인은 1943년 6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송별회를 한 뒤 우지천 아마가세쓰리바시라는 다리 위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이날 건립된 시비는 처음 건립이 추진된 이후 12년 만에 힘들게 탄생한 결실이다. 시작은 운동주 시인과 우지시의 인연을 알게 된 시민들의 모임에서였다. 시인에 대한 관심을 나누던 이들이 2005년 시비를 만들자며 모임을 만들었고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한반도와 일본의 화합담 2개로 만들어진 '기억과 화해의 비'에는 운 시인이 1941년 모교 연희전문학교의 학우회지 '문우'에서 발표한 시 '새로운 길'이 한글과 일본어로 새겨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주민, 시민 활동가, 일본과 한국 언론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운 시인의 유족 중에서는 시인의 조카인 윤인석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고 모교 연희전문학교의 후신인 연세대의 백영서 인문대학장도 함께했다. /연합뉴스



일본 교토에 세워진 운동주 시인 기념비.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광양시 성황동 골프연습장, 스크린연습장
경매물건

토지 3935평 감정가 110억 건물 2667평 최저가 77억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제비로 도로점 토지 4409평 감정가 30,000,000 최소가 30,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임야 파도리사무소인근 도로점 토지 18452평 감정가 140,000,000 최저가140,000,000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월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지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감전 신전선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